



천국서도 한센인과 함께...

‘소록도 천사’ 마가렛 간호사 영면... 향년 88세

평생을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돌봐온 마가렛 피사렉(Margaritha Pissarek·한국이름 백수선) 간호사가 지난달 29일 고향인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선종했다. 향년 88세.

소록도 성당과 한센인들은 10월 한 달을 마가렛 간호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매일 마가렛을 위한 위령 기도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의 영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중구 쌍림동에 있는 간호협회관 앞과 고흥 도양읍에 있는 마리안느와 마가렛기념관에는 애도를 표하기 위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김연준 나주빛가람동성당 주임신부(전 사단법인 마이안느와 마가렛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10분께 마가렛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한 요양원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했다.

장례미사는 고인이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낸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시립 요양원 내 경당에서 현지 시각으로 오는 7일 오후 3시 30분께 열린다.

마가렛은 1966년부터 39년간 소록도 병원의 간호사이자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한센인들을 위해 묵묵하게 사랑과 봉사, 나눔을 실천해왔다.

그의 시신은 유언에 따라 오스트리아 의과대학에 기증될 예정이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 국적인 마가렛은 1955년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59년 12월, 경북 예관 한센인 정착지에서 일했다. 이어 1966년 10월 벨기에 ‘다미안 재단’에서 파견된 의료진의 일원으로 소록도에 오게 됐다.

그는 1962년 2월 소록도에 온 마리안느 스토거(여·89)간호사와 함께 평생을 이곳에서 헌신했다.

20대에 소록도에 왔던 마가렛은 2005년 건강이 악화되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70대 ‘할매’가 돼 오스트리아 고향으로 돌아갔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의 재활치료를 도왔고 관련 의료시설을 건립하고 영아원과 보육시설 도입에도 힘썼다.

푸른 눈의 두 ‘할매 천사’는 소록도 한센인들을 편견 없이 대했다. 한센병을 천형(天刑)으로 여겨 모든 이들이 한센인들을 외면할 때 두 사람은 환자들의 환부를 맨손으로 만졌으며, 무엇보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센인들을 돌봤다.

간호사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수녀가 아니지만 ‘수녀’로 불렸다. 소록도에 온 초창기에 두 사람의 삶이 거룩하고 성스러워서 누군가 ‘수녀

20대부터 소록도서 봉사...40여년간 한센인 위해 헌신
소록도 성당, 월말까지 추모 기간...고흥·서울에 분향소
시신은 기증...녹동초 학생들 바자회 성금 끝내 못 전해



마가렛 피사렉이 생전에 고흥 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을 보살피는 모습. <김연준 신부 제공>

남’이라고 부르면서 호칭이 ‘수녀’로 굳어졌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큰 할매’(마리안느), ‘작은 할매’(마가렛)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이들과 함께 지내며 봉사해 온 김 신부는 “마가렛 간호사는 한센인들의 어머니이자 누나이자 언니, 동생과 같은 존재였다”며 “한센인들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며 끝없이 도왔던 분”이라고 회상했다.

김 신부는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설립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 마가렛’을 제작했다. 이 영화를 관람한 녹동초 학생들은 마가렛의 방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평생을 옷 한벌 사입지 않고 욕심없이 살아온 마가렛의 삶에 감동받은 학생들은 최근 바자회를 열어 마가렛을 위한 돈을 모았다. 학생들은 지난달 27일 모은 돈으로 마가렛과 마리안느를 위한 옷 2벌과 마가렛에게 전달할 50만원을 오스트리아에 택배로 발송했다.

옷과 돈은 28일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지만 마

가렛은 옷을 입어보지도 못한 채 하루 뒤 숨을 거뒀다.

정부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에게 1972년 국민훈장, 1983년 대통령표창, 1996년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여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마가렛과 마리안느를 명예 전남도민으로 선정했다. 또 같은 해 전남도는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를 꾸려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고흥군과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사)대한간호협회 등은 사택 등록문화재 지정, 기명우표 발행 등 다양한 홍보사업도 펼쳤다. 고흥군은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을 제정해 올해 3회째 시상식(10월 27일)을 계획중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고흥군, 전남도 등 4개 기관과 서울 중구 쌍림동에 있는 간호협회관 앞과 고흥 도양읍에 있는 마리안느와 마가렛기념관 등 2곳에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국민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시민 눈으로 본 ‘80년 5월’ 앵글에

고(故) 최병오씨 사진전...5일~내년 3월 10일 동구 5·18기록관

광주 시민의 시점에서 5·18민주화운동 현장을 찍은 사진 130여점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5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광주시 동구 5·18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기획전 ‘1980년 5월 단상’을 연다.

1980년 당시 광주에서 ‘백양사’ 사진관을 운영했던 고(故) 최병오씨가 모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는 자리다.

자료는 최씨의 아들 최재영 작가가 지난 7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 발견해 기록관에 기증하면서 세상에 나왔다.

전시에서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 모습을 촬영한 사진 137장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한다. 사진은 1980년 5월 15일, 20일, 22일에 촬영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진에는 시민들이 햇불을 들고 금남로를 행진하는 장면, 옛 전남도청 분수대 일대에서 시민궐기대회를 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전시에서는 최씨의 네거티브 필름과 유물뿐 아니라 최 작가가 5·18민주화운동의 10일간 항쟁을 아크릴·모래로 표현한 회화작품 10점 등도 함께 공개된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5·18기록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다.

최 작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담은 이번 전시가 80년대 민주화를 열망했던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전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줄인다

2024~2028학년도 25~24명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수 변동 추이와 교원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해 ‘2024~2028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은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를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하지만 개별 학교에서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로 교실이 부족할 경우 학급당 학생 수의 탄력적 조정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이점선 교육감 공약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단계적 추진을 위해 다음

학년도에는 2학년까지 이를 확대 적용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중학교의 경우는 2024학년도에 신입생 학급당 25명 배치를 기준으로 했다.

앞으로 2028학년도까지 이를 24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고등학교(일반고)는 2024~2027학년도에는 학급당 25~26명, 2028학년도에는 신입생 증가로 27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러한 중기 학생 배치계획은 향후 5년 동안 학생 수와 학급 수 등을 예측하는 것이다.

앞으로 시교육청의 교육여건 개선과 각종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남에 교권전담변호사가 없다

‘2명’ 광주, 상담은 전국 최다

광주에서 근무 중인 2명의 ‘교권전담변호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권 관련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교권전담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교권전담변호사는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법률상담과 소송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변호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소속된 교권전담변호사는 총 20명에 불과하다.

광주시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는 2명뿐이고 전남도교육청에는 교권전담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

광주에서 이뤄진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는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649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322건), 대구시(1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 건수는 2020년 628건, 2021년 796건, 2022년 804건 등 꾸준히 증가했다. 광주 교권전담변호사 한 명이 맡는 법률 상담 건

수는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324.5건으로, 전국 평균(122.1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만큼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에서는 2020년 141건, 2021년 147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2022년부터는 전담 변호사가 없어 상담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이라도 전담변호사를 충원해야 한다”며 “시·도 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자문변호사 인력 풀 확대 등 방법을 통해 교사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새로운 변화의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제16회
정읍 구절초 불꽃축제

2023. 10. 5(목) ~ 10.15(일) 구절초 지방정원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571)

개막식 및 축하공연
10월 8일(일) 오후 5시
*야간 불꽃쇼 : 오후 7시

출연가수
정민호 김다현 박강성 레이디티 설하수

주최·주관 정읍시/정읍시구절초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Kwater 한국수자원공사